

## 미디어폴리스 시대의 텍스트과학

### - 미디어와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고찰

박여성(제주대)

#### 1. 들어가기: 미디어폴리스로 진입하며

테크놀로지의 쾌속성을 강조하는 실재하는 비실재(Real Virtuality)의 문화는 디지털-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중매체를 통하여 통시대 속에 축적된 미디어산출물을 무한대로 제공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디지털 경제’, ‘기술사회’, ‘상호작용성’, ‘사이버 문화’, ‘사이버 민주주의’, ‘컴퓨터 문학성’, ‘초국적성’ 및 ‘초문화성’의 이름으로 경제, 정치, 과학, 예술, 문학 등 제반 사회체계(Sozialsysteme, 루만, 1984)가 구성되고 있다. 하우스프트마이어·슈미트(1985), 크로이처(1975)가 문학개념의 변혁을 선언한 지 20여 년만에, 원고지와 서적은 파일과 전자 책(e-books)으로 진화한 것이다.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이론(료타르, 제임슨, 넬슨, 보드리야르, 벨쉬), 미디어과학<sup>1)</sup>과 매체학(Médiologie, 드브레)을 위시한 거대담론은 ‘뉴 미디어’(인터넷, 멀티미디어, 하이퍼텍스트, 가상현실)의 물결을 21세기의 시대정신으로 각인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텍스트이론 연구』(Research in Text Theory, Vol., 25, 1999, S. Inkinen 편, Walter de Gruyter)의 일환으로 기획된 “미디어폴리스, 텍스트, 하이퍼텍스트 및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양상들”(Mediapolis, Aspects of Texts, Hypertexts and Multimedial Communication)의 내용을 소개해 보자: 제1부에서는 텍스트, 하이퍼텍스트와 서사성의 문제가 다루어진다. 1970년대부터 미디어기호학(Mediensemiotik)을 정립해 온 헤스-뤼티히는 언어학과 문예학, 기호학의 텍스트 개념이 일관된 정의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비판하면서, 텍스트이론이 간텍스트성/간매체성 이론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헤스-뤼티히, 1999: 4) 수동적이기만 했던 수신

1) 미디어과학(Medienwissenschaft)에 대해서는 슈미트(2000)를 참고할 것.

자-독자는, 전일적 텍스트로의 전환을 통해 자신의 취향과 관심에 따라서 코뮤니카트를 구성하는 능동적 주체로 부상한다. 특히 텍스트의 시공간 개념을 변형시키며 기존의 선형성에 대한 총체적 재인식을 촉구하는 전자문서와 하이퍼텍스트의 발현은 활자화된 책과 글쓰기-읽기의 일방적 소통구조를 거부하는 야우스·이저의 수용미학(Rezeptionsästhetik),<sup>2)</sup> 크리스테바의 간텍스트성(Intertextualität),<sup>3)</sup> 바흐친의 다성성(多聲性), 데리다의 차연(différance), 들뢰즈의 리좀(rhizôme) 구상에서 갈구된 유목민적(nomadisch) 이상을 실현하는 셈이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언어를 기호의 제왕으로 모셔 온 언어순수주의가 다중매체<sup>4)</sup> 시대의 도래로 말미암아 위협에 직면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도전의 기회이다.

국내에서는 하이퍼텍스트에 대해서 문예학자와 방송학자들이 접근하고 있으나,<sup>5)</sup> 언어학계에서는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수업에 응용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아쉬운 것은 기술문명의 유용성과 이로 인해 촉발된 인식론적 환경 변화의 혼동이다. 기술문명이 미디어를 사용하며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는 개체와 공동체의 인지에 영향을 주면, 결국 미디어 행위도식(Medienhandlungsschemata)도 변화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실존하는 개체들의 현상학에서는 언어가 아닌 융합기호가, 텍스트가 아닌 하이퍼텍스트가 출발점이자 종착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치코니는 절점과 링크의 속성을 파헤치고 있다. 절점은 첫째,

2) 이에 대해서는 차봉희(1993)의 『독자반응비평』(고려원)을 참조.

3) "Tout texte se construit comme mosaïque de citations, tout texte est absorption et transformation d'un autre texte"(모든 텍스트들은 마치 인용의 모자이크처럼 구성된다. 모든 텍스트는 곧 다른 텍스트의 흡수이자 변형이다)라는 크리스테바의 정의는 박여성(1994: 268)에서 재인용.

4) 멀티미디어(Multimedia)를 '다매체'라고 번역한다면, 미디어폴리스에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기술적 장치들의 열거적 복수성과 그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단층성을 함축할 것이. 이에 반하여 본고에서는 매체들의 복수성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역사적-기능적 중첩성과 중층성, 누적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중매체'라는 역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5) 예를 들어 최혜실(1999)은 인문학과 인접분야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으며, 김성도(1999, 2000)는 디지털 언어에, 김성재(1999, 1999a)는 커뮤니케이션 미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든 종류의 기호를 총동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중매체적이다. 둘째, 모든 절점에서 언제든지 새로운 연결을 위한 출발점과 소실점을 동시에 충족하는 점에서 역동적이며 무제한적(infinite)으로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한다. 셋째, 클릭하는 동시에 사용자들이 연결된다는 점에서 상호작용적이다. 절점들을 결속하는 연결은 하이퍼텍스트의 비선형성과 무제한성을 증폭하며 리좀 적인 속성을 지식의 표상과 축적에 일상화시킨다. 레저우드가 예시하듯이 이런 시도는 1990년대부터 멀티미디어 문학(Multimedia Literature)과 통속소설에 기초한 컴퓨터 게임들에서 관찰된다. 그는 여기에서 CD-Rom 프로그램인 The Madness of Roland와 Myst를 보기로 하이퍼텍스트 해석학과 독자반응을 분석하고 있다.<sup>6)</sup>

제2부에서 코니처는 후설의 내적 시간의식(inneres Zeitbewußtsein)을 토대로 미디어폴리스의 현상학적 계보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이 책에서 가장 주목되는 논고는 테오발데리가 시도하는 ‘하이퍼텍스트의 유형학’이다. 화용론적 범주를 동원한 텍스트유형학적 시도에 상응하여, 멀티미디어 기호는 어떻게 유형화될 것인가? 테오발데리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 상위범주에 따라 하위범주화를 시도함으로써 텍스트유형학과 적극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장르의 유형학의 첫 발을 내딛고 있다.

- FIGURAL(integral)-verbal(serial)
- VEBAL(serial)-figural(integral)
- FIGURAL(serial)-verbal(serial)
- VERBAL(serial)-FIGURAL(serial)
- VERBAL(serial)-FIGURAL(serial)-figural(integral)
- VERBAL(serial)-FIGURAL(integral)

제3부에서 델린저는 미국 상업방송에서 나타나는 담화의 양식을, 에리케 이넨은 탈육화(脫肉化: Disembodiment)의 갈망으로서의 사이버 섹스를, 인

6) 우리 나라에서도 2001년 3월 14일부터 북토피아와 iMBC가 공동으로 구축한 ‘디지털 구보 2001’(www.booktopia.com)에서 “구보씨 이야기”를 하이퍼텍스트 소설로 제공하고 있다(동아일보 2001년 3월 13일자 참조).

키넨은 인터넷에서 펼쳐지는 정보고속도로 사회의 수사학을 조명한다. 제4부에서는 러시아의 인터넷 발전상과 광고전략, 글로벌 스페이스에서의 대화, 특히 채팅과 화상회의, 가상집무실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 논고는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패션업체 베네통(Benetton)의 파격적인 광고 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이렇듯 시대의 상황은 텍스트과학에 파격적인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1980년대부터 국내에 정착되어온 텍스트과학과 기호학도 언어체계의 분석은 물론이고, 언어를 둘러싼 기호학적 환경과 인식론적 변혁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선형성에 토대를 두었던 종래의 개념체계를 극복하고, 쓰기와 바꿔쓰기 및 덧쓰기,<sup>7)</sup> 자유로운 연결과 역연결이 실행되는 무한공간이자 증식적으로(inkrementel) 구성되는 전일적(全一的) 처리형식(holistic Processing)으로서 하이퍼텍스트를 그려보고자 한다.

## 2. 디지털 문명과 미디어폴리스: 역사적 개관

### 2.1 하이퍼텍스트의 출발

하이퍼텍스트의 선구형태는 초기 성서번역의 행간번역(interlineare Version)이다. 여기에서는 동등한 위상적 위치(글자 대 글자, 행 대 행)에 목표 언어의 낱말들이 대응될 뿐이다. 번역결과도 사전항목에 따른 축어적 일치(verbal correspondence)에 불과하다.<sup>8)</sup> 잠시 윈트베르거 시편(Windberger Psalter)의 순례자의 노래(Cantium Gradvum)를 보자.

7) 이러한 은유는 쥘네트(G Genette)의 ‘팔렙세스트’(Palimpseste: 羊皮紙) 비유에서 특징적이다. 일부에서는 그의 비유를 비판하고 있으나, 그것은 핵심을 간파하지 못하는 지적이다. 오히려 그가 재생성, 흔적의 속성을 통하여 지적하는 간텍스트성의 본질은 어떤 언어학적 정의보다 적절하다. 무수한 버전들로 증식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흔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하이퍼텍스트는 이를테면 21세기의 양피지인 셈이다.

8) 축어적 일치(verbal correspondence)와 역동적 동가(dynamic equivalence)에 대해서는 나이다·태버(1975) 참조.

*In uf huob ougen mine an die berge dannen chumit hilfe mir*  
 Levavi oculus meos in montes unde venite auxilium mihi.

*Hilfe min uone deme herren derer getan hat himil unde erde*  
 Auxilium meum a domino qui fecit caelum et terram

*Nihne gebe er in die bewegede fous dinen*  
 Non det in commotionem pedem tuum.

(라틴어와 헬라어로 쓰인) “말씀”의 어순조차도 신성불가침으로 숭앙되던 초기 성서번역에서는 원문에 확정된 사고질서를 거역할 수 없는, 위와 같은 형태의 하이퍼텍스트가 정통적 장르로 정착된다. 중세 이후에는 그 어떤 필사본에도 뒤지지 않는 구텐베르크의 대량인쇄를 기점으로 문자언어와 수고(手稿)는 일종의 언어적 벽돌들(단락, 절, 장, 색인, 목차, 여백 등의 시각적 분절장치)로 구축된 정교한 텍스트라는 건축물로 진화한다.

## 2.2 문식성(文識性: 문자언어)

인류는 생물학적 소여인 음성언어를 극복하려는 일환으로 문자 언어, 활자 언어, 디지털 언어라는 세 종류의 체계를 발견(발명)했다.<sup>9)</sup> 크레타 섬의 선형문자 A에 기반을 둔 이집트 상형문자로부터 잉카와 수메르의 설형문자와 결승문자를 거쳐서, 최초의 체계적인 그리스의 알파벳 발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노력은 시간의 축에만 기억되던 구두언어의 불확정성을 공간의 정지태로 포착하려는 시도였다.<sup>10)</sup> 문자가 발명되면서 음성과 동반되던 다중매체성은 지각의 스펙트럼을 눈길로만 집중시키는 시대를 연 것이다. 다른 한편, 문자의 발명은 과거의 문화적 기억을 현재의 운반자로 포착하는 매개와 전송 및 번역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배태한다. 문자는 원격 커뮤니케이션의 실현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감을 통한 역사의식의 지평도 확립

9) 이에 대해서는 김성도(2000) 참조.

10) 문자의 역사에 대해서는 웅(1982/1987), 호프스태터(1979/1999) 참조.

하였다. 풍요로운 세미오시스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도 음성문자에 기초한 문자의 출현 덕분이었다.

넓은 영역에서 문자가 통용됨으로써 구두언어가 안정되고 문자언어 스스로도 표준화된다. 라틴어와 헬라이어 성경이 개별언어로 번역되는 가운데 대다수 유럽어의 기틀이 정립되고 다듬어진 언어체계를 발판으로 생산된 무수한 문학작품은 다시 개별언어의 미학적 잠재력을 증폭시켰다. 체계이론의 비조인 파슨즈(Parsons)의 말을 빌면 언어는 재귀준거적으로 정의되는 진화적 보편소의 유형이다: “[ ... ] 진화의 보편소는 구조 및 그에 관련된 과정들의 복합체로서, 결국에는 생명체계의 적응능력을 증대시키는 발전이자, 확실히 더 높은 층위의 일반적인 적응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체계들이다.”(메르텐, 1994: 149 재인용)

한편 텍스트가 정착되면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도래한다. 즉 텍스트 안에 저장된 정보들은 의례나 비공식적인 행위의 연출과는 판이하게 활성화된다. 입말이나 몸을 통한 기억은 메타 행위를 허용할 수 없는 반면에, 텍스트는 뜻풀이가 가능하고 요약되며 비판과 해석의 대상이 된다. 텍스트가 랑그적 속성이라면 몸을 통한 기억은 파롤에 해당한다. 텍스트는 기능적 기억을 저장 기억으로 바꾸는 대신에, 구술성(Orality)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무한히 팽창될 수 있다. 그 역할을 맡은 첫 번째 제도는 다름 아닌 (교회 안의) 도서관<sup>11)</sup>이었다.

구텐베르크(1455년) 이래로 인쇄술이 실용화되면서 수고와 필사본은 대량생산의 유통구조를 지닌 책으로 변모하였다. 한편 초기의 책이 정교한 필사본을 모방했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것은 인쇄술의 발명이 아직 새로운 글쓰기 메커니즘으로 승화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어쨌든 대량생산과 더불어 경제적인 필요성으로 인하여 상인들 사이에 유통되던 편지 형식으로 된 신문의 전신에서<sup>12)</sup> 미디어제공물의 정기적인 제작이 시작된다. 최초의

11) 교회와 도서관이 문명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차지하는가는 에코의 『장미의 이름 (Il nome della rosa)』에서 흥미진진하게 기술되고 있다. 이인화의 패러디 『영원한 제국』에서는 규장각(奎章閣)으로 설정되었다.

12) 독일의 아우그스부르크(Augsburg) 지방에서 유통되었던 푸거 차이퉁(Fugger Zeitungen)이라는 일종의 상용편지들은 당시의 무역중심지에서 유통되던 물품

대중매체로 탄생한 신문은 방(傍)이나 편지와 달리 동일한 내용을 대량 인쇄하여 배포함으로써 미디어가 사회의 현실(Wirklichkeiten)을 구성하는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2.3 책에서 파일로

만화경(Kaleidoscope)으로부터 영화와 녹음기가 탄생하였고, 라디오와 텔레비전 및 컴퓨터, 나아가 인터넷 등의 미디어가 등장함으로써 기존의 교육 특권은 붕괴되고 문화의 민주화도 촉진된다. 근대 이후로 폭발적으로 발달한 과학기술 문명은 지금까지의 발전속도를 누진적으로 가속화하여 더욱 많은 미디어들이 더욱 짧은 시간 안에 출현한다. 광속으로 실행되며(거의) 훼손되지 않는 전달능력은 지구촌 커뮤니케이션 공동체의 출현을 보장하였다. 빌게이츠와 더불어 구텐베르크 시대와는 비교도 안될 지식의 양적·질적 유포피아가 현실이 된 것이다.<sup>13)</sup>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를 24시간으로 비유해 보자. 그렇다면 언어는 비로소 21시 33분이 되어야 탄생하였다. 즉 진화과정의 89.8% 시점에 와서야 창발하였다. 문자는 99.4%가 되는 시점에 탄생하였다. 그 밖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는 23시 59분 14초 이후에 생긴 것들이다. 말하자면 진화시계의 자정 46초 전부터 인쇄서적(46초 전)과 신문(32초 전), 영화(8초 전)와 라디오(5초 전), 텔레비전(4초 전), 그리고 3초 전에 컴퓨터, 아마도 2초 전에 인터넷이 출현했을 것이다. 즉 미디어 진화의 속도는 누승(累乘)으로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가속화는 물자의 소통시대인 고대 사회에서는 보속

---

들에 대한 정보를 규칙적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인쇄의 대량성과 사건의 시사성 외에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종류의 정보를 일정한 대상에게 제공하는 보도의 주기성(週期性: Periodizität)이라는 기준이 정착된다. 1609년에는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 Zeyttungen, 볼펜스뷔텔(Wolfensbüttel)에서 Aviso라는 초기 신문이 처음으로 발간되었는데, 내용은 주로 전쟁이나 권력핵심지에서 흘러나온 충격적인 소식들이었으며 간간이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실려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메르텐(1994) 참조.

- 13) 볼츠(N. Bolz)의 “구텐베르크-은하계의 끝에서”(2000, 윤종석 옮김, 문학과지성사)와 “컨트롤된 카오스”(2000, 윤종석 옮김, 문예출판사), 레비(P. Levy)의 “사이버 문화”(2000, 김동윤 옮김, 문예출판사) 참조.

(步速)과 유속(流速), 에너지의 이동시기인 산업혁명기에는 풍속(風速)과 음속(音速), 거대한 정보 네트워크로 구성된 미디어폴리스에서는 광속(光速)으로 진행된다(메르텐, 1994: 142 참조).<sup>14)</sup> 그러나 이러한 혁명은 당대에 감지되기 어렵다. 컴퓨터가 열어 놓은 디지털 언어의 가능성이 꾸준히 조명되고 있지만, 구텐베르크의 발명이 인쇄된 책의 인지적 가능성을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진정한 자율성과 창조성을 해독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 3. 텍스트관의 추이

#### 3.1 언어학과 문예학

통사론적 방법론으로부터 출발하여 화용론적 조망으로 발전하기까지 텍스트언어학에서는 외연적 규모(extension)와 한정(delimitation), 표층결속성(cohesion)과 심층결속성(coherence), 언어적 맥락(cotext)과 비언어적 환경(context), 구조와 체계 등의 범주로 텍스트의 속성을 규정하였고,<sup>15)</sup> 문예학에서는 한편으로는 유사성, 대립, 반복, 평행성 등의 구조적 특성을 통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텍스트와 코드, 미학적 규범, 문학적 전통과의 관계로부터 의미를 획득하는 체계로 규정한다. 이런 시각들을 토대로 이제 텍스트관 -특정한 성분들(의미구조, 통사구조 또는 언어행위)의- 선형적 연쇄체 그 이상의 다층적 구성형식, 즉 기호복합체라는 전일주의적(holistic) 인식으로 통합되고 있다. 보그랑드의 정의를 인용해 보자:

음소는 음성을 통하여 (언어)체계 속에서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Differenzie-

14) 속도에 대한 앞의 비유들은 은유이지만, 광속의 비유는 전자의 속도를 생각해 보면 물리학적 현실이다. 루만도 커뮤니케이션의 재귀적 운행이 진화의 성능을 계속 높인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메르텐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속도증가의 추세를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5) 텍스트관의 추이는 드 보그랑드/드레슬러(1981), 헬버히(1990), 룰프(1993), 고영근(1999) 참조. 한편 드 보그랑드(1997a/b, 2000)에서는 이전과 다른 입장이 제시된다.



ren)을 가진다. 형태소는 낱말조각을 통하여 의미들을 문법화시키는 기능(Grammatikalisieren)을 가진다. 어휘소는 낱말을 통하여 의미를 어휘화하는 기능(Lexikalisieren)을 가진다. 문법소(Syntaxeme)는 구와 문장을 통하여 의미를 선형화하는 기능(Linearisieren)을 가진다. 텍스트는 맥락을 통하여 의미를 통합하는 기능(Integrieren)을 가진다. 끝으로 텍스트종류는 텍스트표본(Muster)을 통하여 의미를 인지도식화하는 기능(Schematisieren)을 가진다. 이러한 구상에서는 일차적으로 형식적 단위들에 관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의 '풍요'와 '빈곤' 사이의 진화적인 등급 사이로 진행되는 기능적인 처리양상들에 관련하는 것이다 ..... 이러한 구상은 인지과학, 복잡계(複雜界) 이론 및 인공지능 분야 등의 최신 연구성과들을 반영하고 있다. 요컨대 의미는 온-라인(On-line)으로 생산되며 재귀조직되는 것이자, 사전의 항목처럼 간단히 기억에서 호출되는 것이 아니다.(드 보그랑드, 1997b: 8)

여기에서 지금까지의 텍스트다움(Textualität)과는 다른 하이퍼텍스트다움(Hypertextualität)을 거론해 보자.

(1) 표층결속성(Kohäsion): 텍스트의 표층결속성은 통사적 조응관계의 여로 장치로 연결된 연쇄체의 속성으로서, 문장보다 상위에 있는 단락, 장, 섹션 등의 거시적 텍스트구조를 구축하며, 텍스트의 소재를 제공하는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 이때 독자는 표층에서 결속된 위상적 연계성을 근거로 뒤따르는 부분텍스트들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하이퍼텍스트는 이러한 시공간적 선형성을 부정한다.

(2) 심층결속성(Kohärenz): 텍스트의 심층결속성은 동위성[Isotopie] 같은 의미결속장치뿐만 아니라, 독자의 관심이나 사전지식, 독서 행위에 의해서도 제어된다. 그런데 하이퍼텍스트에서는 선형적 텍스트와 달리 상이한 절점들 사이에서는 심층결속성이 임의 또는 고의로 회피된다. 상이한 경로로 동일한 절점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선형성(Linearität): 텍스트 내용의 시공간적 질서를 표상하며 정보를 배열하는 선형화 과정은 담화의 주제와 독자의 관심에 좌우된다. 하이퍼텍스트에서는 상이한 절점들에 할당된 상이한 밀도에 상응하여, 새로운 근접성과 거리가 창출된다.

(4) 간텍스트성(Intertextualität): 텍스트를 작가와 독자를 연계시키는 수

평적 축과, 텍스트를 이전의 다른 텍스트와 연계시키는 수직적 축, 이 두 축이 교차하는 공간 속에서 작가, 독자, 텍스트 사이에는 고정된 위치란 없으며, 간텍스트적인 운동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것은 ‘차연’의 운동이며, 목소리들(다성성)의 흔적으로 나타난다.

### 3.2 간텍스트성: 미디어장르의 창발

네트워크 형태의 미로에 대한 착상은 에코의 “열린 예술 작품(Opera aperta)”(1962)에서 이미 개진되었다. 언어학적 간텍스트성의 연구<sup>16)</sup>에서는 텍스트들이 서로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이룬다는, 즉 텍스트란 무(無)로부터 창출(creatio ex nihilo)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간텍스트성에 대한 가장 실증적인 연구자인 프랑스의 문예학자 쥬네트는 “팔렝세스트(Palimpsestes)”(1981, 독일어판 “Paratexte”[1991])에서 전승과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간텍스트성 연구의 획을 그었다. 그가 설파한 -기존의 텍스트공간에서 이미 시도된- Anspielung (풍자), Autotexte(독립 텍스트), Bearbeitung(번안), Burleske(골계극), Cento(절취 단장하여 엮은 시가), Collage(콜라주), Digest(다이제스트), Exzerpt(발췌록), Fragment(斷片), Genotext(심층텍스트), Glosse(주해), Hypomnema(회상록), Imitation(모방), Interpretation(해석), Kommentar(주석), Kontrafaktur(상반모방), Lesart(해설), Mimesis(모사), Montage(짜집기), Nachdichtung(모작), Original(원본), Parodie(풍자/희화), Palinodie(비방한 시의 취소), Paraphrase(뜻풀이), Paratexte(Palimpseste; 기생텍스트), Pastiche(혼성모방), Persiflage(빈정대는 야유), Phänotext(현상/실현텍스트), Plagiat(표절), Posttext(후 텍스트), Prätext(선 텍스트), Quelle(원전), Redaktion(편집), Remake(재탕), Reminiszenz(회상록), Resümee(요약), Rezension(서평), Satire(풍자시), Synopse(일람), Travestie(형식개작), Übersetzung(번역), Vorwort(서문), Waschzettel(선전문구), Zitat(인용), Zusammenfassung(요약) 등의 기법은 컴퓨터 하이퍼텍스트를 장식하는 장르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혼용과 복제를 통하

16) 이에 대한 이론적 틀은 플레트(1991) 및 박여성(1996a) 참조.

여 다양한 미디어장르(Mediengattung)가 창발한다. 이로써 관심의 초점은 선형적 텍스트에서 비선형적 간텍스트로, 언어적 하이퍼텍스트에서 다중매체적 간기호성으로 이동한다. 이런 창발의 토대는 미디어제품물의 존재에 상응하는 세분된 사회체계들이다. 다음의 도표는 이러한 루만의 구상을 수정하여 위상적으로 도시해 본 것이다(하우프트마이어·슈미트, 1985: 140 참조).

	사 회 체 계																	
커뮤니케이션 체계	정 치	경 제	과 학	문 화														
구성요소들의 영역			교 육	종 교	예 술													
기본 요소 체계					미 술	무 용	음 악			문 학								
상 위 장 르					회 화	조 각	설 치	발 레	탄 츠 테 아 터	퍼 포 먼 스	르 네 상 스	고 전	바 로 크	낭 만 / 현 대	회 곡	시	산 문	소 설
					구 상						절 대	표 제						
하 위 장 르															고 정 운 울	자 유 운 울		
비고	* 이 도식은 더 많은 변수들로 더 기능적으로 세분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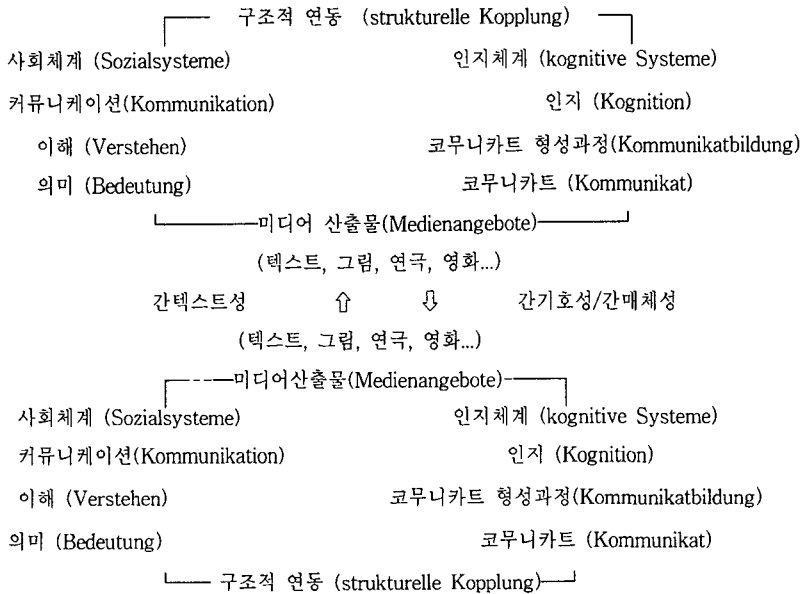
## 4. 하이퍼텍스트

### 4.1 하이퍼텍스트의 생성

물질적 토대인 코뮤니카트 재질이나 인지행위의 결과인 미디어산출물을 매개로 인지체계와 사회체계는 연동(連動)된다. 그렇다면 하이퍼텍스트를 “구조적 연동의 매체인 미디어산출물이 매질과 시공간을 달리하여 다시 다른 미디어산출물과 관계를 가지는, 즉 구조적 연동의 다층적 중첩”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구조적 연동이 단일매체적, 일회적, 직렬적, 고정적, 단층적이라면, 하이퍼텍스트에서는 다중매체적, 무제한적, 병렬적, 가변적, 중층적이다.<sup>17)</sup> 즉 구조적 연동의 양태 자체가 진화한 것이다.

---

17) 대부분의 하이퍼텍스트에서는 간텍스트처럼 여러 층위가 교차된다: [a] 교체 (Substitution): 기호체계(시각, 청각) 사이의 충돌과 간섭. (i) 기호(매체)의 교체: 상이한 기호매체 사이의 교체: 이질적 매체들 사이의 교체: 언어/그림(성서→성화), 언어/음악(괴테의 ‘파우스트’→리스트의 피아노곡), 그림/음악(하르트만의 ‘전람회의 그림’→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피아노곡). 동일한 예술 장르 안에서 세분된 매체 사이의 교체(동질적인 매체 안에서 세분된 교체): 그림(유화→수채화), 음악(피아노→기타아), 현악기(바이얼린→첼로) 사이의 미시적 간매체성을 더 세분할 수 있다. (ii) 언어의 교체: 예를 들면 대역(對譯). (iii) 장르의 교체: 서정시>서사시>희곡, 소나타>교향곡, 시>소설>수필. [b] 추가 (Addition): 원문에는 없지만 추론될 수 있는 또는 저자의 임의에 따라서 추가: 종속적 추가-기생텍스트: 서문, 모토, 후기, 색인, 각주 (주변텍스트), 인터뷰, 광고(덤텍스트). 병렬적 추가-원문의 공간적 연장. [c] 확장(Extension), 압축/축약 (Rekapitulation, Zusammenfassung, Abstract): 원문의 복잡한, 또는 복합적인 조어구조를 역으로 풀어주거나, (원문의) 의미밀도를 느슨하게 해주는 경우: 단축역, 축약의 축약, 다이제스트, 해설, 주해, 요약, 요점정리. [d] 치환(Permutation): 작위적 기법(콜라주, 혼성모방): 다다이스트 트리스탄 차라(Tristan Tzara)는 종이 위에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18번을 종이 위에 쓴 후, 이를 조각 내어 무작위로 배열한 후 오려 붙인다. 이것은 일종의 혼성모방으로서 연극 및 영화의 기법으로도 이용된다. 이 과정은 몽타주이고 결과는 콜라주이다. [e] 복합: 대부분 여러 방식이 총체적으로 적용된 복합적인 미디어산출물이다. 이에 대해 플레트(1991: 23 이하) 참조.



## 4.2 하이퍼텍스트의 기호학적 속성

지금까지 하이퍼텍스트의 실제적 응용은 대부분 엔지니어링과 자연과학 분야에서 주도되어 왔으며, 인문학에서의 응용은 아직 초창기이다. 1932~61년에 이르는 기계주의, 1961~67년에 이르는 디지털 시대의 개막 그리고 1985년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공간의 등장을 통하여 서적이거나 CD-ROM에 국한되었던 하이퍼텍스트 공간은 근원적 변혁을 맞이한다. 실시간성과 인터랙티브 방식으로 가상과 현실, 원본과 진본, 저자와 독자, 텍스트의 수렴적 구조와 하이퍼텍스트의 발산구조는 무한 세미오시스를 증식하고 있다.

일단 하이퍼텍스트를 일련의 링크의 집합을 통하여 연결된 텍스트 접속면들의 집합으로 정의해 보자.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하이퍼텍스트이건 전통적인 텍스트와 교류를 유지하며 기존의 텍스트로부터의 진화적 팽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개의 전통적인 텍스트들이 하이퍼텍스트로 동화될

수 있으며, 하이퍼텍스트의 내용이 기존의 전통적인 언어 텍스트와 일치할 수도 있지만, 하이퍼텍스트를 링크된 텍스트들로만 규정하는 것은 부족하다. 하이퍼텍스트를 다룰 경우, 선형적이고 고정된 -인쇄된 텍스트에서 강요된- 구조로부터 그리고 진흙이나 파피루스, 종이나 플라스틱 등 인류 커뮤니케이션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해온 매질적 운반장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야 한다. 이를 대신하여 컴퓨터가 하이퍼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을 위한 매체로 등극한다. 대부분 하이퍼텍스트의 면들에 포함된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비선형적이며 다중매체적인 속성을 가진다. 일정한 양의 지식은 다시 다른 일정한 하이퍼텍스트의 일정한 페이지로 중층적으로 저장되며, 그 저장은 끊임없는 개정과 확장을 필요로 한다. 말하자면 기존의 텍스트는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변경이 불가능한 공간 속에 존재하지만, 하이퍼텍스트는 상업성이나 오락성 또는 여타의 경제적-정서적 근거를 토대로 업그레이드되거나 없어지게 된다.

구두언어의 시간적 선형배열이나, 문자언어의 음소와 형태소, 문장과 절, 장, 에피소드, 플롯 등의 공간상의 선형적 연쇄체를 대하던 독자들과 미디어 폴리스 시대의 웹서핑 개체들은 텍스트에 접하는 미디어 행위부터 판이하다. 독해순서(예를 들면, 좌/우, 상/하, 앞/뒤)가 시각적-시간적으로 강요된 선형적 텍스트에서와는 달리, 그들은 접속 창을 넘나드는 중형무진의 교차준거를 통하여 항진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의미구조는 정박하지 못하고 무한한 지시구조의 그물 안에서 불안정하게 미끄러진다'고 설파한 데리다의 통찰이 더 설득력이 있다. 기호의 단위상적 통사구조에만 익숙하던 행태는 절점과 링크를 통하여 다중매체로 분지되고, 그 역동성은 선형성 시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일단 그 공간에 접속하면 모든 절점과 링크는 끝인 동시에 시작으로서 소실점이 없는 뫼비우스의 띠를 형성한다.

### 4.3 절점(Knoten; Nodes)

외연에 의해서 규모가 한정되는 텍스트는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독립적인 언어적 단위지만, 새로운 환경에서는 그 자체가 하이퍼텍스트를 구성하는 절점들이다. 이러한 절점으로의 분절은 기존의 텍스트에서는 예측할 수 없

던 속성이다. 물론 하이퍼텍스트도 컴퓨터 모니터의 프레임 내부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쇄된 활자 텍스트나 책의 면과 유사한 시지각적 속성을 가진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1) 하이퍼텍스트의 다중매체성: 상이한 매체들(언어, 시각 및 청각매체)을 통합하는 가운데 하이퍼텍스트의 면(面) 자체가 다중매체적이 된다. 즉 일종의 프로그램 터미널 역할을 하는 하이퍼텍스트의 면으로부터 다채로운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들에 접근할 수 있다.<sup>18)</sup> 이처럼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더욱 큰 의미를 얻고 있는, 그러한 기호학적으로 복잡한 구성체를 ‘다중매체 텍스트’(multimedial text, 헤스-뤼티히, 1999)라고 부른다.

(2) 하이퍼텍스트의 역동성: 전통적인 텍스트에서는 텍스트의 구성성분들의 형상은 출간(인쇄)되는 순간 시각적으로 고정되며, 개정판이 나올 때까지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하이퍼텍스트의 경우는 이러한 한계가 무력화된다. 하이퍼텍스트 면의 다중매체적인 구성요소들(이미지, 그래프, 다이어그램, 공식, 문자언어나 음성[파일], 음향, 잡음, 음악 파일, 동영상, 게시판 등)은 원하는 만큼 그 형상이나 위치 및 기능을 수시로 변경(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다시 읽기나 다시 보기 등 “다시 하기”의 행위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가능해진다. 그것이 바로 뉴네트가 역설한 (그리스말로) Palimp(다시)+seste(쓰기)의 참뜻이다.

(3) 하이퍼텍스트의 상호작용성: 사용자는 클릭 버튼을 이용하여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는 새로운 대상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자발적으로 조절한다. 물론 이때 하이퍼텍스트의 면 안에 있는 버튼이나 프로그램들(이클레멘 플러그 인) 도구들은 복잡한 하이퍼텍스트 구조 속에서의 항진(航進)을 도와주어야 하며, 새로운 다중매체가 필요하면 즉시 창출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도상적, 언어적, 청각적, 아마 가까운 장래에는 접촉 및 향취, 미각 절점을 구별하거나, 그것들이 제공하는 정보제공물에 따라서 하이퍼텍스트들의 절점들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대상 절점이나 면 절점, 하이퍼텍스트 절점이나 프로그램 절점). 이렇게 세분하면 방금 앞에

18) 기호의 종류에 대해서는 슈뢰더(1993) 및 너트(1999) 참조.

하이퍼텍스트로 간주되었던 그 하이퍼텍스트는 다시 새 면에서는 절점으로 강등된다. 즉 다중매체 도큐먼트의 일부분이 중앙 위치에 오게 되면 일련의 다른 대상 절점들은 잠정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하이퍼텍스트 단위로 머무르다가 필요하면 호출된다. 이 모든 경우에 몇 개의 버튼을 사용하여 한 절점에서 다른 절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 5. 링크(Link)의 속성

논증이나 서사 등의 초시구조에서는 종래의 의미에서의 텍스트의 위계적 선형성이 보장받았다.(반 데이크, 1981 참조) 그러나 절점과 링크로 운용되는 하이퍼텍스트는 대상에서 대상으로, 주제에서 주제로 도큐먼트에서 도큐먼트로의 이동을 도모한다. 이러한 독법은 하이퍼텍스트에 존재하는 정보파편에 접근하고 해독하며 사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그렇다면 하이퍼텍스트를 읽는다(읽기<sup>1</sup>)는 행위가 전통적인 방식의 읽기(읽기<sup>2</sup>)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링크를 통한 비선형성과 무제한성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규정되는 하이퍼텍스트적 속성은 1970~80년대의 텍스트언어학에서 주장했던 텍스트의 속성인 한정성과 선형적 구조성 및 위계성과는 배치되는 상황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 5.1 비선형성(Nonlinearitä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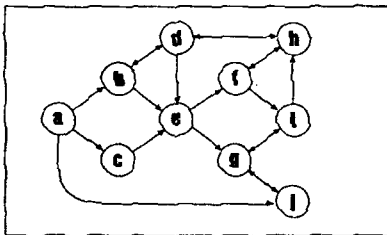


Figure 2

전통적 언어 활동인 쓰기과 읽기는 이제 그 역할을 상호 교환한다. 하이퍼텍스트의 구조화에 참여하는 사람은 의미 작용의 가능한 층들의 윤곽을 그리며 이미 독자가 된다. 그와 대칭적으로, 자료의 저장소에서 항진하는 사

람은 그것의 일정한 양상을 발현하며 생산에 공헌한다. 독자가 창안한 의미의 본래 회로는 코퍼스의 구조 자체에 통합될 수 있다. 하이퍼텍스트가



창안된 이후, 모든 독서 행위는 잠재적인 쓰기 행위가 된다. 인쇄되거나 쓰여진 텍스트를 읽을 경우, 독자는 일정한 방향(좌→우, 우→좌, 상→하, 앞→뒤)으로 읽을 것을 강요받는다. 즉 텍스트 독서는 일련의 연쇄체 생성행위로 이해된다.(치코니, 1999: 25 참조) 물론 텍스트 저자가 독자에게 특정한 주도적인 경로에 주의를 더 기울이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경우 독자는 해당하는 부분들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읽은 부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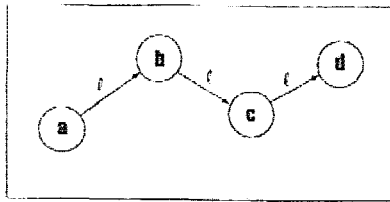


Figure 1

피드백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피드백은 다시 원상태로 피드포워드(Feed-forward) 된다. 즉 일정한 방향으로의 회귀가 그 과정의 고유가치(Eigenwert)인 셈이다. 그러나 하이퍼텍스트에서는 한 절점에서 다른 절점으로 갈 때 통상

정해진 순서는 없으며, 다른 절점으로 이동해서 거기에 제시된 절점들을 선택하는 순서 또한 마찬가지로 정해지지 않았다.(치코니, 1999: 25) 그렇다면 일단 시작된 하이퍼텍스트 순환고리 안에서는 시·공간적 순서라는 위계질서는 형클어진다(tangled hierarchy).<sup>19)</sup> 하이퍼텍스트도 한정된 개수의 폐쇄된 텍스트들로 이루어졌지만, 그들 사이를 항진하는 경로는 성분 텍스트들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절점들과 연결하는 링크의 유형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때 언어 텍스트와 다중매체 기호들이 중층적으로 연결되면, 그 선택의 양과 질은 더욱 복잡해지고 불안정하고 예측불가능해 질 수밖에 없다.

## 5.2 무제한성과 증식성

공동체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하여 유지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비로소 존재한다는 듀이(J. Dewey)의 예지가 맞다면, 커뮤니케이션의 진화는 공동체 진화의 불가결한 조건이다. 그 결과 커뮤니케이션

19) '형클어진 위계질서'(tangled hierarchy)에 대해서는 인지과학의 고전인 호프스태터(1979/1999)의 『Goedel, Escher, Bach: An Eternal Golden Braid』(한국어판, 『괴델, 에셔, 바흐: 영원한 황금노끈』[까치글방], 1999) 참조.

션의 전개 가능성은 커뮤니케이션이 가지는 재귀준거성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모든 가능한 커뮤니케이션의 잠재력이라는 변수에 좌우된다. 즉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은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그 커뮤니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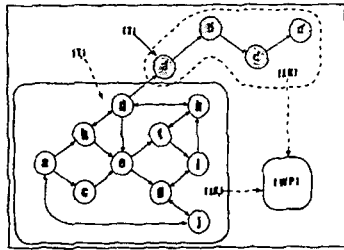


Figure 3

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식으로 자기생산(自己生産: autopoietisch)적으로 진화해 왔다.<sup>20)</sup> 이에 반해 인간의 언어는 공감의 구체적인 규범화를 진전시켜서 개념과 정의들을 공식화하여 추상화와 규칙화를 달성한다. 즉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언어의 구조가 더욱 선명해지는 재귀준거(Selbstreferenz)가

이루어진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잠재력이 증가할수록 커뮤니케이션의 개선을 위한 기능이 가속화되는 현상이야말로 인간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성이다. 하이퍼텍스트의 또 다른 속성은 자기생산적으로 링크됨으로써 얻는 무제한성이다. 하이퍼텍스트의 면 절점들은 가변적인 많은 수의 대상 절점들을 가질 수 있다.(치코니, 1999: 31 참조) 이때 그 절점들을 연결하는 링크의 경우의 수는 수학적으로는  $N$  팩토리알로 연산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한( $\infty$ )에 가깝다. 왜냐하면 하이퍼텍스트의 절점이 해당하는 하이퍼텍스트의 면 안에 있을 경우 하나의 순환고리(내재적 순환고리)를 얻게 되며, 다른 면의 절점들이 다시 출발 하이퍼텍스트의 절점들과 링크되는 순간 또다른 순환구조(외재적 순환고리)를 얻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절점과 링크들은 출발점인 동시에 소실점으로서, 일단 진입하면 빠져 나올 수 없는 무궁동(無窮動) 괴비우스의 띠를 엮는다. 더군다나 하이퍼텍스트는 마치 피부를 재생하는 조직 자체가 피부이듯이 진화한다. 즉 텍스트의 접속면이 재귀조직(Selbstorganisation)과 재귀증식(Selbstreproduktion)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또한 텍스트를 증식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모든 하이퍼텍스트들은 원하는 대로 무한정 반복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작은

20)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산출의 배증기는 가속도로 반감하고 있다. 이를 도시한 메르텐(1994: 142) 참조. 자기생산(Autopoiesis)이나 재귀준거의 개념사에 대해서는 박여성(1995, 1996b, 2000) 참조.

층위의 질서가 큰 층위의 증식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만델브로트 집합이나 프랙탈 구조와 유비적(類比的)이다.<sup>21)</sup>

## 6. 하이퍼텍스트를 통한 지식 표상

하이퍼텍스트는 절점들과 연결들로 이루어진 잠재적으로는 무한한 네트워크이며, 각 절점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할 수 있다.

- (1) 하나의 가능세계(mögliche Welt) 또는 그 일부분의 주어진 영역에 대한 정보
- (2) 절점에 함유된 소재들에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한 절점에서 다른 절점으로 이동하는 방식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는 일련의 명령들의 집합
- (3) 한 절점에서 다른 절점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 주는 명령 집합
- (4) 사용자가 새로운 절점과 링크들을 만들 수 있게 해 주는 일련의 명령 집합.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하이퍼텍스트의 구축방식은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창출과 지각과정에 본질적인 변화를 수반한다. 수백 년 간 서구문명은 인쇄 매체를 지식의 생산과 전달 및 재생산의 가장 특권적인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그 결과 지식의 조직은 선형적이며 명제논리에 입각해 왔다. 그러나 하이퍼텍스트 논리학은 선형적 사고에 의해서 강요된 시공간적 한계를 분쇄했으며, 지식의 습득, 조직, 재생산의 방식을 재고하도록 촉구한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지각, 분류, 추론 등의 인지연산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감관을 통해 개념화하고 조직하는 문화적 방식이라고 해 보자. 그러면 서구문명에 의하여 디자인된 인지적 건축구조를 되짚을 필요가 있다. 즉, 세상에 대한 지식표상의 방식을 비교해야 한다. 유럽의 인문학 멀티미디어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는 움베르토 에코는 서구문명의 지식표상 방식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개괄한 바 있다.<sup>22)</sup>

21) 이에 대해서는 마노비치(L. Manovich, 1999), 상징형식으로서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 as a symbolic Form)(한국기호학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참조.

22) 에코는 전점(Node)과 링크(Link)를 통하여 설명과 주석, 참고문헌과 원전의 안

- (1) 헬레니즘 시대: 수집된 자료들의 진리치와는 무관하게 무차별 수집한 잡다한 데이터들을 양적으로 집적했다.
- (2) 중세: 세상에 대한 지식은 일정한 평가를 통하여 세상의 형식에 관한 정확한 가정에 준거하여 구조체로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지식은 위계구조, 이를테면 수형도(樹型圖) 구조로 재조직된다. 즉 보편적인 것에서 개별적인 것으로, 이분법적으로 분지하는 조직을 가동한다.
- (3) 계몽주의: 근본적으로는 중세의 수형도 조직과 다르지 않지만, 일정한 세계관에 따라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다시 조직하기 시작한다. 이를 통하여 위계적 구조는 세상에 대한 데이터를 표상하고 조직하는 가장 기능적이고 경제적인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며, 그것만으로는 세상의 형식을 재생산할 수 없음이 드러난다. 이러한 자각을 통하여 수형도 체계들의 상이한 절점 사이의 매개적인 경로들을 더욱 세밀하고 집중적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여전히 위계적인 방식으로 지식의 일정한 영역에 대한 정보를 특정한 하위 수형도로 조직해 가는 것을 결정한다. 이와 같은 서로 연결된 하위 수형도들은 계몽주의의 백과전서의 창출이라는 프로젝트로 추진되며, 지식이라는 영토에서 전국적(全局的, global)이거나 국지적인(local) 운동을 위한 지침이 된다.
- (4) 구조주의: 현재까지 세상에 대한 지식의 유통방식은 기호학적 백과전서의 구조주의적 표상 방식이다. 현재 산출된 정보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그런 데이터를 가시적으로 만드는 데이터의 다양성과 인지적 도구들은 엄청나다. 그러한 다방면의 지식을 하나의 안정적이고 단일한 방식으로 영원히 조직화하는 프레임이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여전히 난감한 프로젝트로 간주된다. 이것은 무제한하며 항속적으로 변하는 구조를 가지는 개방된 프로젝트이다. 즉 다른 역동적 체계들과 조율되는 역동적 체계이다. 그것들은 다시금 국지적 층위에서 다른 체계들과 상호관련하는 시스템들이다. 이런 표상방식은 잠재

---

내, 그것들에 대한 번역문헌 정보, 외국에서의 연구현황과 병렬 코퍼스(Parallel Corpus), 시청각 자료, 장식용 사례 또는 동영상 클립을 고전적인 의미의 텍스트와 병합하여 세상 지식들의 파편을 통합하는 하이퍼텍스트 백과사전의 우주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은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들(언어적, 시각적, 청각적)의 거대한 보관소에서 광대한 정보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해 주는 상호연결을 규명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간텍스트 연구자들을 위한 가용할만한 기술적 해결을 보여준다.”(마이, 1991: 50) 전자도서관 구축에 대해서는 최기선(1999) 참조.

적으로 무한한 차원들을 가지는 미로(迷路)의 형상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구조와 내용도 지속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중층적 경로들을 허용한다.

에코는 위와 같은 표상방식을 가지 뻗기의 속성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들뢰즈와 가타리가 잠언적으로 설파했던 바로 리좀(Rhizôme)의 속성이 바탕이 되어 있다(치코니, 1999: 34 참조).

- (a) 가지의 모든 부분은 다른 어느 부분과도 연결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전방위성).
- (b) 하나의 가지에서는 나무 뿌리와 같은 구조에서처럼 점이나 위치는 없고 오로지 선들만이 존재한다(비정지성, 운동성/방향성/연결성/비종결성).
- (c) 가지의 어느 부분도 부러질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자라날 것이고 선들 중의 하나를 따라갈 것이다(역동성/개방성).
- (d) 가지는 반계통적이다(비고정성/비예정성).
- (e) 가지는 항상 다른 뿌리를 만드는 자기 자신의 외부를 가진다(자기생산).
- (f) 가지는 주물(鑄物) 틀이 아니라 지도이다. 그 지도는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 그 어느 차원과도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가지는 모든 차원에서 부분으로 위아래로 분지할 수 있고, 자유롭게 연속적으로 변형할 수 있다(잠재적 계획성).
- (g) 가지들의 그물은 어느 방향으로든 뻗어나갈 수 있어서 또다른 뿌리들을 만든다(즉 나무들의 부분적인 네트워크가 다른 가지들로부터 인위적으로 절단될 수 있다(이식성).
- (h) 가지들은 중심이 없다. 따라서 국지적인 선제권은 중앙의 또는 원래의 심급과 독자적으로 취해질 수 있다(탈중심성/다중작용성/다방향성).

이제 도서관들의 도서관, 메멕스, 글로벌 문학, 기호학 백과전서, 리좀, 지구촌 규모의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아이디어들을 결속하는 공모가 바로 하이퍼텍스트라는 착상으로 실험되고 있다. 하이퍼텍스트야말로 기호학적 백과전서의 형식들을 지배하는 복합적인 가지구조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아닐까? 한 권의 책으로 된 백과전서로 인류지식의 총체

를 통합하는 것은 여전히 이상적인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을 비선형적인, 확장 가능한, 변경 가능한, 다중매체를 통하여 통합된 하이퍼텍스트의 우주로 창출함으로써 그 이상에 한발 더 다가서는 게 아닐까?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하이퍼텍스트를 통하여 지식의 영역을 증폭함으로써 이미 우리의 정신적 과정은 재편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이런 확장의 귀결이 무엇일지, 그것이 하이퍼텍스트의 형식으로 어떻게 표상되어야 할지를 연구해야 한다. 물론 지식의 확장이 하이퍼텍스트의 도래로 생긴 문화에 의해서만 획득된 것은 아니다. 모든 코뮤니카트가 남김없이 하이퍼텍스트로만 소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7. 전망

용(1982/1987)이 말하듯이 언어의 역사가 기계화의 역사라면, 전자화되고 하이퍼텍스트화되고 멀티 미디어의 우주로 빨려 들어간 낱말들이 수 백만 년에 걸쳐 진화해 온 인지적 구축을 리모델링하는 아우라를 촉발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필서나 타이프 또는 컴퓨터로 글을 쓰는(혹은 음성인식기를 통하여 입력하는) 것은 우리의 사유방식에 상이한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아직도 인쇄된 책의 선형적 명제구조를 가장 신뢰할만한 표상방식으로 고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고의 구조 자체는 전혀 연쇄적이지 않다. 오히려 사고의 구조는 연관된 관념들 사이의 체계이며 어떤 관념도 다른 어떤 것에 선행하거나 후행하지 않는 조절불가능한 인식의 구조이다. 그 관념들을 선형적 구조로 조직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선택 중의 하나였을 뿐이다. 하이퍼텍스트도 연쇄체의 논리에 따라 전통적인 인쇄 텍스트의 결합으로부터 그들의 구조를 추출했다면, 인쇄된 텍스트가 사고의 종착역이 아닌 것처럼, 하이퍼텍스트도 경험을 표상하고 증식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전히 불완전하고 잠정적인 하나의 도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이퍼텍스트는 인류가 지금까지 개발한 어느 방식보다도 효과적으로 우리의 사고를 역동적인 그물로 재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역사의 광대한 흔적을 보존하는 글로벌 문학도 가능해 질 것이며,<sup>23)</sup> 하이퍼텍스트의 논리와 디지털 패러다임이 우리의 학습과 상호작용, 노동과 유희, 예술

과 준거의 방식을 바꾸는 가운데 우리의 인지구조의 조합방식을 재편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하이퍼-디지털 문명이 기존의 모노-아날로그 문명을 사멸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진화가 곧 멸종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문식성으로의 패러다임 교체에서도 구술성은 사멸되지 않았다. 모든 미디어는 낡은 미디어를 시니피앙으로 취하여 또 다른 시니피에를 포착하려는 지양(止揚)적 표류를 반복할 뿐이다.

### 참고문헌

- 고영근(1999), 텍스트이론-언어문학 통합론의 이론과 실제, 대우학술총서 448, 아르케.
- 김성도(1999), 말, 글, 그림: 융합기호학 서설(1999년 12월, 한국기호학회 발표논문).
- 김성도(2000), 디지털 언어의 기호학: 고고학과 인식론을 중심으로, 영상문화연구 1: 178-221.
- 김성재(1999, 편), 매체미학, 나남.
- 김성재(1999a), 미학적 커뮤니케이션과 대중매체 수용자의 미학적 능력-시각적 매체 생산품의 선호도를 중심으로, 김성재(1999): 17-65.
- 나이다·태버(E. Nida/Ch. Taber)(1975),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 네흐트(W. Nöth)(1999), Handbuch der Semiotik, J. B. Metzler Verlag.
- 드 보그랑드/드레슬러(R. A. de Beaugrande./W. Dressler)(1981), Einführung in die Textlinguistik, Niemeyer.
- 드 보그랑드(R. A. de Beaugrande)(1997a), New Foundations for a Science of Text and Discourse, Ablex Publishing.
- (1997b), Textlinguistik: Zu neueren Ufern?, 안토스·티츠(G. Antos/A. Tietz)(1997, 편), Die Zukunft der Textlinguistik: 1-11.
- (2000), Textlinguistics at Millennium: Corpus data and missing links, TEXT(인쇄 중)
- 랜드/들래니(G. P. Landow/P. Delany)(1990 편), Hypermedia and Literary

23) 최근에 주목받는 디지털 서사(Digital Narratology)의 구상은 랜드(1990, 1994)가 제안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최혜실(편, 1999), 스트레이트(1993) 참조.

- Studies, MIT Press.
- 랜드(G. P. Landow)(1990), The Rhetoric of Hypermedia: Some Rules for Authors, G. P. Landow/P. Delany(편), Hypermedia and Literary Studies: MIT Press.
- 랜드 밖예(G. P. Landow)(1994 편), Hyper/Text/Theory: Johns Hopkins Press.
- 롤프(E. Rolf)(1993), Die Funktionen der Gebrauchstextsorten, Berlin: Walter de Gruyter.
- 루만(N. Luhmann)(1981), Veränderungen im System gesellschaftlicher Kommunikation und die Massenmedien, Soziologische Aufklärung 3: 309-320.
- (1984/1986) Soziale Systeme. Grundriß einer allgemeinen Theorie: Suhrkamp.
- 마이(H. P. Mai)(1991), Bypassing Intertextuality-Hermeneutics, Textual Practice, Hypertext, Plett, H. F.(1991): 30-59.
- 메르텐 밖예(K. Merten/S. J. Schmidt/S. Weischenberg)(1994 편), Die Wirklichkeiten der Medien,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 메르텐(K. Merten)(1994), Evolution der Kommunikation, Merten et al.(1994): 141-162.
- 반 데이크(T. A. van Dijk)(1981), Textwissenschaft. Eine interdisziplinäre Einleitung, dtv.
- 박여성(Park, yo-song)(1994), Übersetzung als interlinguale und interkulturelle Neukonstruktion, LIT Verlag.
- (1996a), 간텍스트성의 문제: 현대 독일어의 실용 텍스트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 83-122.
- (2000), 미디어폴리스 시대의 기호이론, 영상문화연구 1: 136-177.
- (2000a), 번역학의 인식론적-언어학적 정초, 번역학연구 1: 59-91.
- 슈미트(S. J. Schmidt)(1987a, 편), 박여성(역)(1995, 까치글방), 구성주의(Der Diskurs des Radikalen Konstruktivismus), Suhrkamp.
- (1991 편), Der Diskurs des Radikalen Konstruktivismus 2: Suhrkamp.
- (1994), 박여성(역)(1996b, 까치글방), 미디어인식론(Kognitive Autonomie und soziale Orientierung. stw 1128), Suhrkamp.
- (2000), Kalte Faszination. Medien, Kultur, Wissenschaft in der Me-



- diengesellschaft: Verbrück Wissenschaft.
- 슈뢰더(H. Schröder)(1993 편), Fachtextpragmatik: Gunter Narr.
- 스트레이트(J. Strate)(1993), Communication and Cyberspace. Social Interaction in an Electronic Environment: Univ. of Baltimore.
- 아펠(K. O. Apel)(1973), Transformationen der Philosophie, Bd. 1-2: Suhrkamp.
- 옹(W. Ong)(1982), 이지우(역)(1995, 문예출판사),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Orality and literacy: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 London: Methen, 독일어판(1987) Oralität und Literarität: Die Technologisierung des Wortes, Opladen.
- 인किन(S. Inkinen)(1999 편), Mediapolis. Aspects of Texts, Hypertexts and Multimedial Communication. Research in Text Theory, Vol. 25: Walter de Gruyter.
- 쥬네트(G. Genette)(1991), Paratexte. Das Buch vom Beiwerk des Buches: Campus.
- 최기선(1999), 디지털 도서관에서 지식에 이르는 길, 최혜실(1999): 87- 110.
- 최혜실(1999, 편), 디지털 시대의 문화예술: 문학과지성사.  
 (1999) 디지털 서사의 미학, 최혜실(1999): 238-260.  
 (2000) 모든 견고한 것들은 하이퍼텍스트 속으로 사라진다. 생각의나무.
- 치코니(S. Cicconi)(1999), Hypertextuality, Inkinen(1999): 21-43.
- 크로이처(H. Kreuzer)(1975), Veränderungen des Literaturbegriff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플레트(H. F. Plett)(1991 편), Intertextuality. Research in Text Theory,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 하우프트마이어·슈미트(G. Hauptmeier/S. J. Schmidt)(1985), 차봉희(역) (1995, 민음사), 구성주의 문예학(Einführung in die Empirische Literaturwissenschaft), Vieweg & Sohn.
- 헬비히(G. Helbig)(1990), Entwicklung der Sprachwissenschaft seit 1970: Westdeutscher Verlag.
- 헤스-뤼티히(E. H. Hess-Lüttich)(1999), Towards a Narratology of Holistic Texts. The Textual Theory of Hypertext, Inkinen (1999): 3-20.
- 호프스태터(D. R. Hofstadter)(1979/1999), 박여성(역)(1999, 까치글방), 괴델, 에셔, 바흐: 영원한 황금노끈, 상·하(Goedel, Escher, Bach: An Eternal

Golden Braid), Vintage.

## Zusammenfassung

### Textwissenschaft im Zeitalter der Mediapolis

Park, Yo-song(Cheju Nat'l Univ.)

Die Erscheinung von den elektrischen Schriften und Hypertexte, die über raum-zeitlichen Dimensionen und linearen Charakter der traditionellen Texte überschreiten, prägt gerade unsere postmoderne bzw. nomadische Gesellschaft. Also der Zeitalter der Mediapolis ist schon da. In diesem Zusammenhang sollte die Textwissenschaft nicht nur auf die traditionelle Analyse der Sprachsystemen, sondern eher auf die semiotische Ambiente und ihre erkenntnistheoretische Folgen Aufmerksamkeit lenken. Daher möchte ich hier bisherige Begriffskategorien der traditionellen Textlinguistik wie Zentrum vs. Peripherie, hierarchische Struktur, Linearität überwinden: Stattdessen läßt sich die Eigenschaft der Hypertexte wie Schreiben und Plagiate, Link und Knoten usw. als eine holistische Verarbeitungsmodalität betonen. In diesem Prozeß spielen nun die medientechnischen Evolutionen für Entwicklung der Medienhandlungsschemata zwischen den Kommunikationspartnern eine entscheidende Rolle. Bei unserer aktuellen Phänomenologie geht es nicht um reine Sprache, sondern eher um synkretisches Zeichen: nicht Text, sondern Hypertext steht im Mittelpunkt der Interesse. Allerdings, Hypertext bleibt auch als eine mögliche Alternative, bis eine andere Alternative in Erscheinung tritt.